

한국전기공사협회 최길순 회장

[프로필] ≡D

최길순, 1948년

서울공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전문건설 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전기공사협회 남부지회장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에이치케이건설(주) 대표이사

제4기 전기위원회 위원



창립 50주년에 더해 지난 8월 2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한국공사협회 최길순 회장.

그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기늠하는 열쇠는 ‘열정과 융화’란 두개의 단어가 그야말로 핵심이다. 열정을 가지고 현재에 녹아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신앙처럼 실천해 나가면서 융화를 모든 일의 처음과 종결로 선언하는 최길순 회장은 전기공사업계 1만2천여 회원사들의 상징적 존재이다. 그를 통해 한 세기의 반환점을 거쳐 새로운 50년의 도약을 의욕적으로 펼쳐가는 공사협회의 의욕적인 청사진을 들어봤다.

협회에 대한 1만 2천여 회원사들의 신뢰가 ‘핵심 경쟁력’ 전기공사업 미래선진화기획단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 스마트 그린홈·빌딩 인증제도의 타당성 검토 등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취임 1주년에 대한 자체 평가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과 협회 혼란의 시기에 제가 협회장이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협회와 업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론 몸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론 밤새워 고민도 하면서 동분서주 보낸 시간이 벌써 1년이 넘어섰습니다.



비록 짧게 주어진 임기지만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금년에 협회 반세기 역사를 전환점으로 삼아 우리 업계를 위한 100년 미래의 기반을 닦는데 디딤돌이라도 놓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한걸음씩 정진해 왔습니다. 미약하나마 성과를 이룬 뒤편길에는 회원님들의 성원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남은 소임을 완수하려 합니다.

올해는 협회 창립 50주년으로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6월 15일 우리 전기인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모아 5천년동안 우리 겨레와 고락을 함께한 독도에 전기인의 힘으로 건설한 태양광발전설비 준공식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어 전기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해주신 회원들과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선진화 기획단의 역할

협회도 반세기의 역사를 통해 전기공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를 뛰어 넘어 이 제는 전기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전기분야의 각종 정부 위탁사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장에 만족해서 안주해서는 곤란합니다. 지나온 50년 동안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계와 협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전기공사업 미래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미래선진화기획단은 우리 협회의 싱크탱크로서 산하에 법령·제도 개선, 조직 운영 합리화,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올해 말이면 업계의 미래 비전 제시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의 미래상도 제시함으로써 협회 및 업계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차원의 업계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 아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력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ESCO, ITS 분야 등 친환경기술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친환경에너지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통해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해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협회도 회원들의 친환경에너지 사업발굴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하여 스마트 그린 홈·빌딩 인증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운영방안 수립을 위하여 전력산업 정책연구와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한 시공표준을 마련하여 고품격 시공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시공표준(KEIS)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 그린 홈·빌딩 인증제도의 국제표준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시공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면서 이를 선도해 나감으로써 향후 우리 업계의 신성장동력원으로 자리 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전기의 발전에서 소비까지 전

에너지의 주기적 관리를 통해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감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계 발전을 위한 협회의 주요 역할

올해는 협회 반세기 역사를 조명하고 새로운 100년 미래를 위한 청사진 마련에 매진하며 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쌓고, 진행 중인 신성장동력 발굴이 업계의 이익으로 실현될 수 있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기공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함께 추진한 진흥시책이 곧 수립되면, 향후 공사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협회의 핵심 경쟁력과 경영철학

우리 협회의 핵심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전기공사업계를 경영하고 있는 1만2천여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협회와는 달리 전기공사 등록업체의 99%가 자발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매진하는 우리 협회에 대한 회원의 신뢰가 다른 단체와는 다른 경쟁력이라 여겨집니다. 협회 운영을 위한 특별한 경영철학이라기 보다는 저의 삶의 지표로서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녹아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가정에서 그 구성원과의 융화가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회를 운영하면서도 많은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융화시켜 서로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 하고 싶은 말씀

먼저 건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계와 협회를 걱정하며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회원들의 변함없는 신뢰 속에서 우리 협회도 창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다시 한번 도약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지나온 반세기를 기반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협회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과 함께 중앙회 차원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실효적인 진흥시책을 기폭제로 삼아 전기공사업계의 위상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열악한 주변 여건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간다면 미래의 꿈과 희망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협회 역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